

금남로에서



신항락
이사·논설주간

옛말에 ‘물지도 못하는 개라면 짓지도 말라’고 했다. 경제 차원에서 짓다가도 위급 시에는 물어버리는 것이 개의 본능이다. 본능을 상실한 개는 더 이상 개가 아니라는 얘기가. 인간은 본능보다는 이성이 더 크게 작용한다. 목소리를 높이고, 물더라도 이성이 전제가 된다. 그 이성은 강하고, 집단이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지금 서울광장에서는 지난 6월 말부터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이 켜지고 있다. ‘땀글 아닌 민주주의가 사색되고 있다.’ ‘거리 정치’에 나선 것은 새누리당과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니 국민을 상대로 직접 호소해야겠다는 ‘배수진’에 가깝다. 국정원과 여당의 방해 공작이 결국 민주당으로 하여

물지도 못하는 개라면...

금 마지막노선을 택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민주당도 국정조사 무력화의 ‘공범’이라는 데 달리 변명할 여지가 없을 듯하다. 많은 국민들은 정부·여당에 분노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소위 진보 여론의 논조만 봐도 그렇다.

서울광장에 내몰린 민주당

민주당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국민들이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과 경찰의 수사 은폐라는 민주주의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를 단순한 여야간의 정쟁으로 여기고 있을 따름이다. 국정조사를 회색시키기 위한 국정원과 여당의 북방한계선(NLL) 논쟁에 뛰어들어 문제의 초점을 흐렸을 뿐 아니라 이후 전개된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무능과 무기력을 그대로 드러냈다. 지난 16일 우여곡절 끝에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관 전 서울경찰청장 등 두 핵심 증인에 대한 청문회도 예상을 빚나가지 않았다. 증인들이 선서를 거부하고,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범죄 사실조차 부인하는 등 국민을 놀라웠지만 ‘반효인 같은 여당과 전략 부재의 야당’은 어김이 없었다.

19일 2차 청문회에서도 강한 여당의 ‘방패’에 무딘 야당의 ‘창’은 속수무책이었다. 23일 국정조사자 사실상 종료되지만 민주당이 지금까지 얻은 건 전무해 보인다. 현실

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정국을 이끌어갈 전략도, 새누리당을 압박할 지렛대도 없이 그저 하염없이 끌려다녔을 뿐이다.

국민들이 허울 뿐인 국정조사로 전락하고, 민주당이 틀러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가진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정조사의 칼날이 정부·여당을 겨냥할 전대 목을 내놓으리라고 민주당이 생각했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민주당이 대통령 사과와 국정원 개혁,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에 ‘셀프 개혁’ 한 가지만 주문하고 일축한 것도 결과적으로 민주당 내부에 있는 셈이다. 대선 패배 이후 끊임없이 전개된 내분이 국정조사에까지 전이되면서 마침내 집단 갈등을 키워 화를 자초한 것이다.

강한 야당, 정공법이 해법

지금 민주당은 위기다. 인물도 리더십도 보이지 않는다. 127석의 거대 야당이지만 존재감은 없다. 수심석의 의석으로 국민들 등에 업고 정국을 돌파해온 역대 야당과 과거 5공 청문회 등에서 선배 야당원들이 보여준 투지와 열정, 빛나는 성과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초라한 모습이다.

이제 민주당이 가야하는 길은 정도(正道)의 큰 길만이 있을 뿐이다. 먼저 내부적으로 친노나, 비노나 하는 파벌부터 말끔히 털어내야 한다.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조차도

자신을 빚낸 계파싸움이 역겨울 것이다.

적어도 천막당사에서 “오늘자로 민주당엔 파벌이 없으며 깨끗한 정치,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또한 강한 리더십 창출과 비전을 갖춰 일사불란한 체제로 국민에 다가가야 한다.

그리고 강한 야성(野性)을 바탕으로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공장정치’를 통해 정부·여당을 압박하면서도 민생과 예산 등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등원해 상생정치를 피야 한다. 청와대 회동과 같은 선물에 ‘회군’한다면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며 촛불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은 광민당 총재 시절 기초·광역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 추천제를 배제하려던 민자당에 맞서 ‘13일 단식’한 끝에 지방자치제 협상을 타결짓고 국회를 정상화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한나라당 대표 당시 정부·여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정치 일정을 전면 중단한 채 53일간 장외투쟁을 전개해 ‘사학법 전면 재논의’라는 양보를 받아냈다. 강한 야당과 정공법의 결과다.

‘물지도 못하는 개라면 짓지도 말라’고 했다. 하물며 야당이 물고 늘어지지도 못하는 데서야.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호남사람들이 유례없는 무더위에서 체감하는 ‘본노지수’가 더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hshin@kwangju.co.kr

社說

여당 의원 지역감정 발언, 자질 의심스럽다

국회 청문회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수준 이하의 발언이 파문을 낳고 있다. 최근 사이버상에서 호남을 비하하는 악플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에까지 지역감정 망령이 번져 개탄스럽게 그지없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이번 사건의 최초 수사 책임자였던 권은희(전남대 출신) 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에게 “광주의 경찰이나, 대한민국의 경찰이나”고 따져 물었다. 김용관 전 서울경찰청장의 부당한 압력을 폭로하고 나선 권 과장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역력했다.

이에 권 과장은 “경찰은 누구나 대한민국의 경찰”이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조 의원은 “그런데 왜 권 증인을 두고 ‘광주의 딸’이라는 말이 불느냐. 참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저질 발언을 쏟아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었다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신청

하기도 했던 광주 출신 김삼욱 증인에게도 이상한 질문을 했다. 이 의원은 김 씨에게 “조대부고 출신 맞느냐”고 동떨어진 질문을 던졌다. 호남 출신들을 정치쟁점화해 사건을 호도하려는 위양스가 다분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정원과 경찰의 전·현직 직원들이 선거에 개입한 ‘국정 문란’ 행위다. 이와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관 전 서울청장이 검찰에 기소돼 있는 상태다. 그런데도 청문회에서 수준 이하의 발언을 한 두 의원은 사태의 본질을 물론이고, 두 기관과 여당의 과오를 힐책하는 국민감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두 의원에 대해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사과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여론이 악화될 조짐이다. 헌정질서를 지키고, 통합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조의원 등은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이 뒤따를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외국인 범죄 강력 대처해 재발 방지해야

광주에 체류 중인 외국인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다. 게다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면서 범죄가 갈수록 지능적인데다 흉포화되고 있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일어난 외국인 범죄 발생건수는 모두 320건으로, 2011년의 202건에 비해 118건(37%)이나 증가했다고 한다. 지난해 구속자 수도 전년의 8명보다 3명이 늘었다.

외국인 범죄의 증가는 근로자 등 체류자가 늘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실제로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광주 체류 외국인 수는 2.5배나 급증했다. 2006년 3024명이던 외국인이 올해는 7469명으로 4445명이나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128건으로 가장 많고 교통범죄 95건, 지능범죄 47건, 절도 35건, 마약·강도·강간·도박 11건 등 316건에 이른다.

문제는 이들 범죄가 점차 조직화·흉포화 추세라는 데 있다. 심지어 폭력적

직까지 결성하면서 폭력과 절도, 도박이 난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예전에 없던 지능범죄와 마약·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마저 늘고 있는 것은 각종 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들의 대부분이 근로자임을 감안할 때 인적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외국인 10명 중 불법 체류자가 1.2명에 달하고 있어 범죄 대비책도 서둘러 세워야 한다.

외국인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인권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지만 탈·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경찰이 외국인 자율방범대 구성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는 한계가 있다. 당국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생기는 고민을 상담해주는 창구를 더욱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10번째까지는 정신이 있었습니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 나는 물에 흠뻑 젖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계속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여성들에게는 ‘지옥’이 펼쳐진다. 이미 2000년 전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부하들이 점령지에서 적의 딸과 아내, 어머니를 무차별 성폭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1993년 유엔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세운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에서 증인으로 나선 여인들은 차마 기억하기 싫은 당시의 끔찍했던 나날들을 되새겼다. “그들은 밤마다 맨저 어린 소녀를 데려갔고, 다음은 젊은 부인들을 끌고 갔습니다. 나는 단 하룻밤도 우리 아이들과 같이 잔 적이 없었습니다.” 7살 아들, 12

살 딸과 함께 수용소에 갇혀 지냈던 105번 증인은 “어린 소녀들이 군인들에게 불려나가지 않은 밤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울먹였다.

1998년 12월 ICTY 판사들은 세르비아계 특수부대 사령관인 안토 푸룬지야에게 고문과 성폭행 혐의로 10년간의 감옥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06년

6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확정됨으로써, 국제 사법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성폭행을 전쟁범죄로 공식 인정한 판례로 기록됐다.

전쟁이 시작되면 여성들에게는 ‘지옥’이 펼쳐진다. 이미 2000년 전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부하들이 점령지에서 적의 딸과 아내, 어머니를 무차별 성폭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1993년 유엔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세운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에서 증인으로 나선 여인들은 차마 기억하기 싫은 당시의 끔찍했던 나날들을 되새겼다.

그러나 패전국의 아내와 딸, 그리고 그 남편과 아버지가 겪어야 하는 성폭행의 고통과 자욕은 ‘관행’이라는 미명

에 가려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무시되어 왔다. 멀리 갈 것 없이,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우

리의 딸과 누이, 아내, 어머니가 일제의 검은 손아귀에 농락당했다. ‘위안부’ 역시 성폭행 피해자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국제사회는 ICTY의 판결을 통해 ‘성폭행은 전쟁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것을 모르면, 혹은 무시하는 국가는 일본 뿐이다. /홍행기사회1팀장 redplane@kwangju.co.kr



전쟁범죄

희망의 날갯짓하는 착한 기업 필리핀에서 만나다

는 더 많은 소득창출로 더 큰 행복을 선물하고 싶은 꿈을 매일 꾸고 있다.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지난 7월 15일부터 일주일 간 NGO활동 선진지 견학을 통해 지역사민사회 발전과 NGO 구성원의 비전 수립 및 자기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교류로 필리핀을 다녀왔다. 이 프로그램은 2012년 광주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및 빛고을사랑은동사업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된 광주지역 NGO들에게 준 기회로 필리핀의 사회경제 운동인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의 현장 견학으로 진행되었다.

필리핀의 척박한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 더 가치를 부여하면서 자신을 희생해가며 빈곤해소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어 각자가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착한 기업으로 그들의 삶의 긍정적 영향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존경스러운 사람들을 만나고 왔다.

우리의 첫 방문기관은 NGO를 위한 ngo 단체 아시아브릿지, 빈곤과 개발, 여성과 환경, 국제원조, 참여예산, 개혁, 개방을 이끄는 단체로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문제 해결 차원에서 거점역할을 하는 단체로 그곳에서 필리핀 사회적 기업네트워크 ‘Philsen’을 만났다. 필센은 사람중심의 상호교류를 통한 성장이라는 모토로 자연수력을 그동안 소나, 우마차를 이용해 물을 길러야 하는 불편

함에서 벗어나 수 있었으며, 단순하고 쉬워서 기술자가 따로 없어 지속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다.

또한 닭을 좋아하는 필리핀 음식 문화로 가족단위의 소규모형태로 닭을 키우기 구의 소득창출을 하는데 여건 참여자의 기준이 없고 빈곤층이 모여 있는 공동체지역 누구나 가능하다고 한다. 필리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지만 아직 데이터화 되어 있는 자료가 없어 아쉬웠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저히 실직위주의 사업 추진과정을 통해 법이 제정되고 정부지원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차이를 느끼는 부분이었다.

농장인 동시에 학교가 있는 마을공동체 빈곤주거개선 ‘GK농장’ 필리핀의 선두적 사회적기업으로 그곳에서 따뜻한 마음과 환한 미소가 아름다운 체리씨, 23세 젊은 나이에 자신의 보장되는 미래보다 자신의 삶을 접어놓고 헌신하며 역량 있는 청년들과 함께 척박한 땅을 일구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출발하여 지금의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농장과 학교를 세워 가난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어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 그녀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바다의 쓰레기더미 위에 집을 짓고 빈민과 흑야인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쓰레기 매립지 톤도빈민지역,

쓰레기와 함께 구성물에 몸을 싣고 배가 너무 고과 먹어서는 안 되는 췌장비 알면서도 쓰레기 속에서 먹을거리를 찾아 생명을 위해 힘을 느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천진난만한게 뛰어노는 아이들, 삼삼오오 모여앉아 손을 흔들며 주며 반기는 주민들은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며 아무런 의지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지내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으로 그들이 삶의 활력을 심어줄까? 고민하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들어주고 자신들이 발생한 생산소득분에 대해서 각자 나누고 자립의 의욕을 고취시켜 꿈과 희망을 품고 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움을 주는 협동조합이 쓰레기 더미위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날갯짓으로 가까운 미래에 아주 큰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필자에게 이번 필리핀 연수과정은 힐링학교였다. 새로운 삶을 나누고 배우는 가장 중심에 사람들, 사람을 위한 친환경제품으로 다양한 착한 기업이 성장하고 있었으며 그런 착한 기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향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이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심는 코너입니다.

은펜칼럼



서미정
(사)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 회장

연이은 불발더위로 실재없이 돌아가는 애 어린 실외기 소리 무더위 속에서도 본 기관 한편에서는 쉬지않고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인 ‘꿈이 이루어지는 일터’에서 자신들이 꿈꾸고 있는 소박한 희망을 향해 아침 9시가 되면 문 여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서는 지적 장애인, 휠체어를 탄 부인을 밀고 출근하시는 지체장애인 부부, 70 후반에서 80대까지 고령의 남녀 어르신, 함께 도움을 주시는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하여 15명은 매일 하남 공단에서 가져온 세탁기, 냉장고에 들어가는 부품을 단순조립과정으로 뜯어내고, 손질하며 불량 확인하는 작업으로 물건을 가져오고 배달까지 모두 역할부담하며 자발적이다.

아직은 일한 만큼 만족할만한 소득수준은 아니지만 그나마 이 일이 있어서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착한 이들에게 필자

기고



이경석
문태고등학교 교장

2012년 여름이 저를 무렵이었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지인 뜻이서 소박하지만 뜻있는 일을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거창하거나 두드러져야겠다는 생각을 접으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인물이 될 만한 학생을 골라서 자립할 때까지 후원하자는 의견에 생각을 모았습니다. 그 모임을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학생을 탐색하여 선정하고, 2013년 1월과 8월 초에 만나 그동안의 학업상황을 듣고,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후원금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대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씨가 화성에게 지지와 응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씨앗이 자라서 언제 과실을 맺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 과실을 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삶을 동행할 뿐입니다.

1941년, 일제는 만주침략, 중일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나아가 태평양전쟁을 준비하던 시기입니다. 1941년 12월 7일 선전포고 없이 진주만을 습격하여 세계전쟁에 뛰어들어 일제에 한반도는 전쟁을 위한 수탈기 지였습다. 아버지, 할아버지들의 생생한 증언에 의하면 집에서 식기로 사용하던 낫 그릇까지도 빼앗아 갔다고 하니 한 톨의 쌀 알까지 수탈당하던 시기였습니다. 창씨개명을 통하여 이름마저 잃고, 일본말만을 사용해야하는 학교는 황국국민의 양성소로 전락했습니다.

일제 말에 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한국인의 정체성 말살 정책에 큰 고통을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식민사관에 의하여

철저히 왜곡되어 한민족의 뿌리와 줄기가 비틀어졌습다. 혼을 빼앗아 한민족을 해체하려는 일제의 규약무도한 학살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우리의 역사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철학 같은 어둠 속에서도 민족을 지켜 내려는 우국지사들이 많았습니다. 그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길러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민족의 선각자들이 그분들입니다. 대성학교고 우수한교육을 비롯한 수많은 민족사학이 그렇습니다.

설립자들은 당신들이 축적한 모든 재산을 학교설립을 위해 쾌척했습니다. 일본반영회의 갖은 회유와 협박, 방해공작에 맞서며, 사학설립을 불허하던 총독부의 정책을 이겨냈습니다. 어둠의 세상에 작은 씨앗 하나를 뿌린 것입니다. 그 씨앗이 지금의 오랜 전통의 사학들입니다.

광복 68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문태학우들의 자리산 중주, 그리고 천왕봉에서의 광복절 행사가 벅찬 깨달이 여기에 있습니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 취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광고이케팅국 2200-621 (F A X 227-9500) 디 지 털 실 2200-536 프로젝트 팀 2200-555	문화 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